영어영재의 개념설정과 프로그램의 당위성*

박진규**

‖ 차례 ‖

1. 문제 제기
2. 언어/외국어 영재의 개념설정
3. 영어 영재성의 개념 설정
4. 영어영재의 당위성
5.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방향
6.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비록 현장 연구를 통한 개념설정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영어영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나 출발점으로서 영어 영재교육의 개념을 먼저 몇 가지 틀에 근거하여 개념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Sternberg(1993)의 개념화, Gardner(1983)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 개념화, 이신동(1988)의 영재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한 영어 영재성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어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재들을 사례로 영어 영재의 개념설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영어 영재성은 아동이 또래에 비해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언어관련 과제집착력을 보이며, 조기에 영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각 영역에서 혹은 분석이나 표현, 창작 등이 면에서 또래에 비해 탁월한 발달이나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 영재성의 개념에 대한 개념화의 첫 시도이니 만큼 명확한 단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 가설로 생각하

---

* 본 논문은 충청남도 교육청 주관 영재 영어교사연수를 위한 원고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1차 수정보완 후 영어영재지도법(박진규, 2016)에 수록되었으나, 영어영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연구자들의 요청에 따라 2차 수정보완하여 제출된 것임을 밝혀둔다.

** 서원대 교양학부 교수: dansaem@naver.com

지만, 적어도 영어 영재가 존재하다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했다.

주제어 : 언어 영재, 외국어 영재, 영재교육, 영어, 영어교육, 영어영재, 영재판별

1. 문제 제기

1.1. 영어교육의 흐름과 영어 영재교육

최근, 특히 1990년대를 전후로 우리나라에는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입시제도의 변화, 그리고 급격한 세계화에 따른 사회 분위기 및 부모들의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도 영어에 대한 소위 Phillipson(1992)이 말하는 언어 제국주의적(linguistic imperialism) 추종의 열기는 한국전통의 교육열과 만나 한동안 Krashen(2003)이 말한 “영어병 (English fever)”이라는 “영어열풍의 집단광기”(김영명, 2002)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박진규 2008, Park, 2009).

그러나 기하급수적인 영어교육 수요나 투자에 비해 그 효과에 대한 불만족과 투자대비 효과의 불만족과 조기유학 등 조기영어교육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연구의 출현과 함께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조기 영어교육의 열기는 급격히 식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 방향이 국내에서 영어 영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서도 영어 영재교육이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영어 영재의 개념이나 영어 영재교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하기보다는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서 원칙도 없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체계도 없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영어 영재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다소 논리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한계가 있다하더라도 영어 영재에 대한 개념설정과 영어영재의 판별, 영어영재 교수법에 대한 체계

를 잡는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영어교육과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영어영재에 대한 학술적 개념설정의 작업을 시도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장 연구를 통한 개념설정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영어영재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나 출발점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본고를 통해 영어영재의 개념설정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1.2.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교육은, 특히 영재교육은 주어진 문제의 정답만 찾아내는 영재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problem posing, Freire, 1970),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problem solving)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영재교육을 위해서는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문학, 역사, 철학 중심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인문학은 무엇보다 언어가 그 중심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이 모든 영재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말하듯이 영재들의 초기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언어/외국어 중심의 읽기와 이해 능력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위인의 두드러진 자질 중 하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사학(oratory or rhetoric)이라고 한다 (Romm, 2012).

최근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이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반대 여론이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프로그램의 당위성에 대한 회의 혹은 프로그램 존폐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있지도 않은, 혹은 큰 의미도 없는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의 개념과 그런 프로그램이 존재할 필요가 있냐는 논리와 그에 바탕을 둔 압박이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에 대해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인가? 솔직히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아직 이렇다 할 대응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필자 자신도 외국어(영어) 영재의 개념설정에 대해 회의적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박진규, 2008)

그러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에 종사하고 그 프로그램의 존재를 지지하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수학, 과학, 예술처럼 독립된 한 분야로서 언어/외국어영재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영재 프로그램의 존재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 장에서 언어/외국어 영재에 대한 개념설정을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시도하고, 다음으로 수학이나 과학이나 예술영재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고, 이어서 실제 한국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누구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다음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두 가지 가능성, 즉,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과 공통 영역으로서의 영재를 위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에 대한, 또한 이 두 가지 각기 다른 영재교육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언어/외국어 영재를 인정하는 경우, 즉 언어/외국어영재를 인정하는 경우, 어떤 언어와 영재성에 초점을 두고 선발과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하고 권장할만한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업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이슈의 일부인 '왜 외국어 영재이어야 하는가?'와, 또 특히 '왜 영어영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키려고 한다.

다만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이 한편의 논문에서 모두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에 기초하여 그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개념을 먼저 몇 가지 틀에 근거하여 개념설정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Sternberg(1993)의 영재성의 개념에 따른 개념화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Gardner(1983)의 다중지능 이론에 근거한 개념설정을 시도하고, 또한 이신동(1988)의 영재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에 대한 개념설정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재들을 사례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의 개념설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을 위한 시리즈 연구 중 가장 첫 번째 논문이다. 즉,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개념설정,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의 판별,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의 교육, 영문학이나 영어학 자료를 활용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이나 교과통합을 통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사례 등 일련의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이다.

2. 언어/외국어 영재의 개념설정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언어/외국어 영재성의 개념설정과 관계가 있는 언어/외국어 재성은 재능 계발의 문제가 아니라 아닌 재능 발견 및 판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 이유는 재능의 계발은 모든 일반 아동들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전반적인 언어/외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들을 위한 차별화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은 또 다른 영역이므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개념설정 후 별도의 논문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영어영재에 관한 논문이 극소수이고(예, 김명숙, 2015; 전영주 외, 2013), 또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어영재라는 구인에 대한 합의도 이 개념에 대한 공식적인 개념설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이 구인에 대한 개념설정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준도 모호한 실정이다. 그래서 영어영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영어영재에 대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영재 교육에 대한 개념적 틀과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2.1. 언어/외국어 영재의 존재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과연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개념설정을 해야

하는가? ‘있다’나 ‘없다’로 단정을 하지 말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편의상 ‘없다‘라는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자. 만약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없는 것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 개념에 대해 고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이 아닌 영재들을 위한 언어/외국어 교육만 논의하면 된다. 영재들을 위한 언어/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논문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음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수학 영재나 과학 영재처럼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는 단지 ‘없다’는 반대 개념으로서 ‘있다’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즉,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그 속성까지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구성요소까지 분석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 구성요소간의 관계까지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언어/외국어 영재성은 과학이나 수학 영재성처럼 개념화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은 바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내포 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영국의 Shakespeare와 James Joyce,
미국의 Ernest Hemingway와 T. S. Eliot, Noam Chomsky
러시아의 Tolstoi와 Pushkin,
프랑스의 Bernard Werber와 Charles Baudelaire, Saussure
독일의 Goethe와 Schiller
중국의 李白과 杜甫
한국의 김규식 외교관, 시인 서정주와 김소월, 소설가 이문열과 조정래

여기에 예로 든 이런 사람들은 수학영재인가, 아니면 과학 영재인가? 그리고 우리시대의 재미 언어학지 김진우 교수, 평론가 백낙청과 김우창 교수, 반

기문 UN 사무총장, 철학자 김용옥 교수, 나승연 대변인. 이 모든 사람들은 수학이나 과학 영재인가? 물론 영재라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범주에서는 언어/외국어 영재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수학이나 과학 영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인문 영재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Shakespeare나 Hemingway나 서정주가 언어 영재라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언어의 마술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수학이나 과학 영재와 어떻게 다른지 논의해 보도록 하자.

그럼 가장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맹자(孟子)는 진심장구 상(盡心章句 上에서는 군자의 삼락 중 하나로 영재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다:

> 孟子曰 君子 有三樂, 而王天下 不與存焉. 父母俱存 兄弟無故 一樂也,
> 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二樂也,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 君子 有三樂而王天下 不與存焉.
>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으니,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지 않는다. 부모가 다 생존하고 형제들이 무고함이 첫 번째 즐거움이오, 우러러보아서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 굽어보아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이 그 두 번째이오,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 세 번째이다. 군자에게 즐거움이 셋 있으나 천하에 왕노릇하는 것은 거기에 들지 않느니라." (서정기(2013, pp. 691-692)의 맹자를 참고하여 필자가 번역함)

> Mencius said, “The superior man has three things in which he delights, and to be ruler over the empire is not one of them.
> “That his father and mother are both alive, and that the condition of his brothers affords no cause for anxiety; – this is one delight.
> “That, when looking up, he has no occasion for shame before Heaven, and, below, he has no occasion to blush before men; – this is a second delight.
> “That he can get from the whole empire the most talented individuals, and teach and nourish them; – this is the third delight.

"The superior man has three things in which he delights, and to be ruler over the empire is not one of them." (James Legge,1969, pp. 947-948))

여기에서 영재(英才, the most talented individuals)는 어떤 영재인가? 맹자의 천하영재는 하늘이 장차 구세제민(救世濟民)할 사도(使徒로 (서정기, p. 692)로 볼수 있는데, 이런 영재를 과학이나 수학, 혹은 예슬 영재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약 2000년 전 학문의 분화가 있기 전 영재를 과학, 수학, 예술 영재라고 할 수는 없다. 아마도 맹자가 말하는 영재는 인문영재나 언어 영재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종대왕이나 세종이 영재로 극찬한 김시습은 영재인가? 그렇다면 어떤 영재인가? 제왕교육을 받은 세종에 대한 이야기는 두고 조선시대에 신동으로 알려진 김시습을 이야기 해보자. 3세 때부터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시를 지을 줄 알았고, 『정속(正俗)』, 『유학자설(幼學字說)』, 『소학(小學)』을 배운 후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그를 신동(神童)이라고 했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1992, p,757) 김시습은 어떤 영재인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문에 탁월한 재주를 보였던 김시습은 분명 언어영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영재성의 일반적 재능인 g-factor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영재성은 분명 수학이나 과학의 영재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김시습이 21세기인 현재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 보자. 만약 그가 21세기에 태아나 현대식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그는 과연 어떤 영재가 되어 있을까? 언어 영재, 아니면 과학 영재가 되었을까? 혹은 언어/외국어 영재가 되었을까? 이 상상은 언어/외국어 영재의 개념설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왜냐하면 언어/외국어 영재성이 영재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변인인 g-factor로 간주된다면, 여기서의 이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세기 우리 시대의 김시습을 생각하지 않고 언어영재인 조선시대의 김시습만 논하기로 한다.

그럼 더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을 예로 들어

보자. 영어, 불어, 중국어, 일어는 물론, 러시아어, 독어, 라틴어, 인도어까지 구사하였다는 “현대 한국사가 낳은 외교 천재라고 불리는 우사 김규식 선생은 언어 영재라는 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외국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 우사 김규식 선생의 예는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의 방향과 목적도 함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탁월한 외교능력을 위한 언어능력과 외국어 능력을 말하고 있다. 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는 김규식 선생과 같은 인재의 발굴은 한국의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가들, 즉, 서정주, 김소월, 이청준, 조정래 등은 언어 영재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창작의 측면에만 치우친 언어/영재성의 개념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분석이나 평가와 관련된 영재성을 경시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인이 아닌 평론가로서의 T. S. Eliot나 한국의 평론가들인 백낙청이나 김우창과 같은 언어/외국어 영재들을 간과할 수 있다. 언어능력이란 생산적 (productive) 능력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수용적(receptive) 능력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 분석에 탁월한 세계적인 재미 언어학자인 김진우 교수의 예는 탁월한 수용적(receptive) 언어 능력을 잘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언어학자인 소쉬르와 촘스키는 분명 시인도 소설가도 아닌 영재 언어학자다. 즉, Shakespeare, Joyce, Hemmingway, Goete, Tolstoi, 두보나 이백, 타고르와 같은 작가는 아니다. 이들은 언어를 분석하는 언어학자이다. 또한 시인이 아닌 평론가로서 T. S. Eliot는 한국의 평론가인 백낙청이나 김우창처럼 생산적 언어 능력이라기보다는 수용적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언어/외국어 영재성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3. 영어 영재성의 개념 설정

그럼 이제부터 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기존의

틀을 통해서 그 개념설정을 시도하면서 논하기로 하겠다. 먼저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개념을 Sternberg(1993)의 영재성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의 틀에 따라 개념설정을 시도해보고, 다음으로 Gardner의 다중지능에 근거한 개념설정을 시도해 보고, 이어서 이신동이 제시한 영재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의 틀에 따라 영어 영재성의 개념을 설정해 보려고 한다.

영어영재에 대한 연구나 개념설정에 대한 시도는 이미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예, 김영숙, 2015), 아직까지 영어영재에 대한 합의된 개념설정이 없이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영어영재'라는 구인은 이미 검증된 용어처럼 이 단어는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에서도 영재교육 종사자와 일반인에 의해 여과 없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거의 모든 시도교육청 산하 영재 프로그램에서 영어영재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186개의 영재교육언과 325 개 영재학급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 영재 프로그램은 비록 그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영어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1. Sternberg(1993)의 영재성의 개념에 따른 개념화

Sternberg(1993)는 영재성이란 탁월성(excellence), 희귀성(rarity), 생산성(productivity), 가시성(demonstrability), 가치성(value)과 같은 다섯 가지 기초에 근거해서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제안한다. 그렇다면, 언어/외국어 영재성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한 개념인가? 만약 그렇다면, 언어/외국어 영재성도 과학이나 수학, 예술 영재처럼 독립된 분야로서 그 영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탁월성(excellence)이다. 영재는 동년배에 비해 언어/외국어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는 탁월성은 비교적 쉽게 가시적으로 증명이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언어/ 외국어에서 영재는 이 분야에서 극도로 탁월한 조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Bailey(1996)의 논문에 언급된 david나 Cara의 예는 탁월한 언어 영재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재들은 언어발달에 있어서 조숙성을 보인다. 그러나 언어감각에 대한 조속성은 수

학이나 과학과는 달리, 위에서 언급한 Bailey의 언어영재(David와 Cara)처럼 언어의 분석, 언어의 이해, 언어의 표현 등의 특정한 분야에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 나이에 외국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세계영어대회에서 우승을 한 김현수 양과 같은 아동들이 언론(2011, KBS 2 TV)에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보아도 우리 주변에도 언어/외국어 영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희귀성(rarity)의 기준으로 동년배에 비해 조숙하다는 조속성(precosity)의 기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조숙한 것도 희귀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율곡 이이처럼 4세에 천자문을 배우고, 3세에 영어나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고, 또 동시를 쓸 수 있고, 유치원생이 해리포터 소설을 읽는다면, 이것은 분명 희귀성과 조숙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조속성은 최근 조기교육의 유행에 따른 조숙성을 위장한 단순한 기계적인 선행학습의 결과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이해와 표현과 수준 높은, 혹은 적어도 창의적인 사고가 동반된 조숙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생산성(productivity)이다. 이 부분은 언어/외국어의 창작 기능을 고려한다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명료한 특성이다. 즉, 언어/외국어 영재는 언어나 외국어로 표현하는 말하기(speaking)나 쓰기(writing) 능력이 우수하고 그 표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언어나 외국어로 토론과 극적 표현 등 말하기나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문학 장르에서 글쓰기가 탁월한 경우는 분명 언어/외국어 영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외국어 영재성에서 이 생산성은 반드시 창작 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어는 크게 수용적 기능(receptive skills: listening &reading)과 생산적 기능(productive skills: speaking & writing)으로 나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별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경우 생산적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용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것은 언어/외국어 영재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과도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해보자.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나 평

론가는 매우 뛰어난 소리 및 문자에 대한 언어 감각과 탁월한 어휘 및 문장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이들의 능력은 언어/외국어 능력이 아닌가? 누가 보더라도 이 능력은 분명 언어/외국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언어/외국어 영재성의 개념설정에서도 박강희(2012)의 영어 발표를 기반으로 한 학습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표현을 기반으로 하는 말하기 쓰기와 같은 생산적(productive)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감상이나 표현, 분석과 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수용적(receptive) 언어능력도 반드시 재능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가시성(demonstrability)이다. 언어/외국어 영재성은 다양한 검사를 통해 경험적 혹은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언어/외국어 영재성은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인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통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많은 말하기(speech)나 쓰기(composition) 대회, 혹은 하버드나 예일 등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세계 유수대학들이 주최하는 토론(debate) 대회가 언어영재성 혹은 외국어(영어) 영재성의 가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많은 작문대회도 또한 언어/외국어 영재성의 가시성의 유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value)의 기준이다. 언어/외국어 영재성은 무엇보다도, 어쩌면 타 영역에 비해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툿히 최근 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능력을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언어/외국어의 가치는 문화와 오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계 4대 성인들을 볼 수 있다. 현대의 학문적 기준으로 보면 논란의 여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Romm(2012)은 그의 저서인 언어지능(Language Intelligence)이라는 책에서 기술하듯이 수사학(rhetoric)이라는 언어능력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언어영재성(language intelligence)을 가진 사람들이라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거의 모든 위인의 자질 중 설득력(persuasion)이나 웅변능력(oratory)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누구를 언어로 설득하는 힘은 곧 언어재능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3.2. Gardner(1993)와 Bailey(1996)의 언어 영재성의 개념화

다음으로 Gardner(1983)가 말하는 언어 지능에 대해 논의해 보자. Gardner는 그의 저서 마음의 틀(Frame of Mind) 2부 제일 첫 장에서 언어적 지능(verbal-linguistic Intelligence)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Gardner의 언어지능에 대한 설명은 대부붕이언어의 듣고 읽고 이해하고 분석, 감상하는 수용적인(receptive) 기능을 배제한 수사학(oratory)과 창작이 중심인 말하고 쓰는 생산적인(productive) 언어 기능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언어 능력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Gardner의 언어지능은 목적으로서의 언어능력이나 언어지능이라기보다는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보편적인 언어능력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립적이고 특수한 지능으로서, 즉, Spearman(1927)의 용어를 빌자면 구체적이고 특수한 요인(s-factor)로서의 언어지능이 아니라 보편적 지능(g-factor)으로서의 언어지능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체적으로 Gardner가 예를 든 언어지능을 가진 사람으로는 주로 T. S. Eliot 등 시인이나 Sartre와 같은 작가들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시적 언어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예는 언어 발달과 관계가 있고 뇌의 기능을 기반으로 한 병리학이나 해부학적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언어 능력이라는 독립되고 특수한 지능으로서의 언어 지능이나 수학 과학 예술 분야의 지능처럼 구체적인 언어지능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가드너는 언어학자 촘스키가 설명하는 언어능력에 대한 설명을 벗어나는 차원에서 독립적인 차원의 구체적인 언어영재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 비하면 Bailey(1996)의 언어 재능(verbal talent)에 대한 설명은 말하고 듣는 구어 능력(orality)보다는 주로 읽고 쓰는 능력인 문식성(literacy) 중심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Gardner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Bailey는 언어 재능을 가진 두 명의 구체적인 아동, 즉 David 와 Cara를 사례로 제시한다. 그녀는 이 두 언어 재능을 가진 아이의 패턴 혹은 특성을 다

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 유려하고, 묘사적인 구어(fluid, descriptive oral language.)
- 음성부호의 조기 숙달(Early mastery of the phonetic code.)
-언어 기호 치계를 사용하는 앞선 능력 (An advanced ability to use a linguistic symbol system.)
- 장시간 읽기 또는 쓰기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Active engage ment in reading or writing tasks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 목적의 진지함과 결부된 장난기 있는 작업 (Playful doing of a skill coupled with seriousness of purpose.)
- 복잡한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Ability to express complex thoughts.)
- 도전에 대한 열망 (Craving of challenge(trying something new)

즉, Bailey는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을 가진 아동은 언어/외국어 대한 일 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감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감각을 사용하는 호기심과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있으며 평범한 다른 아동들에 비해 조기에 창작이나 언어 표현으로 가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이런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재능 발견과 그에 따른 지원도 영재성의 계발에 필수적인 요소로 들고 있다..

요약하자면 Gardner의 언어지능에 대한 설명은 지나치게 언어의 듣고 읽고 이해하고 분석, 감상하는 수용적인(receptive) 기능을 배제한 수사학(oratory)과 창작이 중심인 말하고 쓰는 생산적인(productive) 언어 기능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언어 능력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반면에 Bailey(1996)의 언어 재능(verbal talent)에 대한 설명은 말하고 듣는 구어 능력(orality)보다는 주로 읽고 쓰는 능력인 문식성(literacy) 중심이라는 한계는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언어/외국어 영재성을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외국어 영재성을 독립적이고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두 가지 측면인 생산적 기능과 수용적 기능을 포함하며 언어의 네 가지 각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모두 아우

르는 개념이나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3. 이신동(2002)의 영재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

다음으로 이신동(2002)의 영재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에 따른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개념화를 살펴보겠다. 이신동(2002)은 그의 논문 '영재 판별방법과 과제'의 제 3 장에서 영재 판별을 위한 영재성의 개념적 정의라는 장에서 영재성에 대한 정의를 "심리측정학적 정의, 특성정의, 사회요구에 기초한 정의, 교육에 기초한 정의, 특수재능 정의, 다차원 정의" (pp. 3-4) 등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고, 각 각의 정의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정의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지능의 관점에서 접근한 Terman 이나 Hollingworth와 같이 일정 수준의 Stanford-Binet IQ 140 이상인 11세 이하의 아동이나 IQ 130 이상의 상위 1%의 아동들을 말한다. 이 경우 언어 부분에 특히 두드러지게 높은 지능을 보이는 아동을 언어/외국어 영재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언어 영재성과 외국어 영재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외국어 영재를 하나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Carroll과 Sapon(2002)의 MLAT(Modern Language Aptitude Test)으로 언어적성 검사를 하거나 혹은 Grigorenko와 그의 동료들(2000)의 Canal-F(Cognitive Ability for Novelty in Acquisition of Language- Foreign) 외국어 습득 적성검사 등을 통 외국어에 한 적성검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Renzulli(1986)가 말한 과제집착력(Task Commitment)이란 심리적 특성을 통한 개념설정인데, 이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될 수 있다. 언어/외국어에 대한 아동의 특별한 호기심, 다양한 흥미, 생산적 사고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제점은 이

렇게 과제집착력을 통해 계발된 능력을 영재성으로 볼 것인가 재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직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본고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다.[1)]

다음으로 사회요구에 기초한 영재교육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의인데, 20세기까지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위주의 수요가 많았으나 21세기에는 지식의 통합이 즉, 통섭(consilience, Wilson, 2012)[2)] 이나 통합 혹은 융합 교육의 토대로서 다시 인문학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져서, 문학, 역사, 철학의 인문학의 기반인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신화, 역사, 및 문학은 창의적 산출이나 미래의 새로운 학문이의 직업을 창출하는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동서양의 문화나 지식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은 점점 더 그 중요성과 비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에 기초한 정의로, 1971년 Marland 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미 연방교육법의 영재성 정의는 '잠재능력의 가시성과 차별화 된 교육서비스의 요구'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잠재능력의 가시성으로 말하자면,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은 언어의 생산적 기능에 초점을 둔 시나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창작이나 통역과 번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언어/외국어 영재성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창작의 각 장르 혹은 각 외국어 영역에서 조기에 언어나 외국어에 영재성을 보이는 David나 Cara(Bailey, 1996)와 같은 아동들에게는 그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서비스가 요구된다.

다섯째, 특수재능 정의는 특별한 적성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능

---

1) 이 문제에 대한 더 전문적인 논의는 The Conceptions of Giftednedd(2판의 제 7장 Gagne(1996)가 쓴 내용(From gifts to Talent: The DMGT as a Developmental Model)을 참고하기 바란다.

2) 통섭이나 융합의 예로는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최근의 영화 James Cameron 감독의 Avatar(2009)나 전산학, 통계학, 생물학, 의학, 수학, 의학 등의 분야가 만나 미래사회의 예방의학의 길을 만드는 신학문인 bioinformatics를 들 수 있다.

이란 일반적으로 예술, 음악,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송인섭 외, 2001). 그렇다면 언어나 외국어 영역도 예술, 음악,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 그 이유는 언어는 분석과 창작이라는 영역 하나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외국어는 분석과 창작 이외에도 번역과 통역이라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다.

여섯째는 다차원적 정의로 여러 요인을 통합하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정의로, Renzulli(1986)의 영재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다차원적 정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Renzulli에 따르면, 영재 행동이란 세 가지 기초적인 인간의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행동들로 구성되는데 "평균이상의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능력(지능), 높은 과제집착력, 그리고 높은 창의력"을 말한다. Feldhusen과 Hoover(1986)도 우수한 일반능력(지능), 집중적인 재능, 그리고 특별한 자아개념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영재성이 나타난다고 유사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Renzulli나 Feldhusen과 Hoover(1986)의 관점은 Gagne(2005)의 구분에 따르면, 영재성이라기보다는 개발된 재능의 관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외국어 영재성을 개발된 재능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 이는 조기교육과 (특히 외국어(영어)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불평등이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의 논의는 개발된 재능도 탁월한 경우 영재성의 발로로 보는 관점에서 영재성과 재능의 구분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본고에서는 편의상 재능을 영재성의 발로로 간주하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언어/외국어 영재성에 대한 개념을 설정을 시도한다면, 아동이 또래에 비해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언어관련 과제집착력을 보이며, 조기에 언어/외국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각 영역에서 혹은 분석이나 표현, 창작 등이 면에서 또래에 비해 탁월한 발달이나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외국어 영재성에 대한 개념화의 첫 시도이니 만큼 명확한 단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는 가설에 가까운 것으로 언어/외

국어(영어) 영재성에 개한 개념설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4. 영어영재의 당위성

그렇다면 왜 외국어(영어)영재인가? 그리고 왜 중국어, 일어, 불어, 독일어 등 수 많은 외국어 중에 하필 영어영재인가? 먼저 현재 세계의 언어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어와 영어와 아랍어가 타 언어에 비해 그 사용자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간단한 예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이 세 언어의 사용자는 각각 원어민을 기준으로 8.5억과 3.3억, 2.7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 2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대략 중국어는 12억, 영어는 5억 이상, 아랍어는 3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언어 사용자의 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문화적 요인과 언어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중국어 사용자에 비해 영어 사용자의 수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영어는 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중국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미 10여 년이 지난 자료이지만 2001년도 유네스코 통계연감에 의하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들 중 86개국에서 영어를 모국어, 공용어, 제2언어, 공식어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들 사용자들의 수는 22억 4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아시아나 유럽의, 중남미 국가들은 모국어나 상용어는 아니어도 영어를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사용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 세계의 영어사용자 수를 32억 명 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어 사용자의 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10억이 넘는 중국어의 위상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에 따른 중국어의 위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일부에서는 중국어의 위상과 그 사용자의 우위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중국조차 최근 영어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 내 많은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영어의 위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나타낸다. 더구나 말이 아닌 문자가 중심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최소한 몇 백 년 이상은 영어의 주도권을 대신할 언어는 없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는 왜 중국어가 아닌 영어가 국제적으로 세계어로서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 2011년 여름 미국 오바마 정부 첫 주중 대사였던 전 유타 주지사인 Jon Huntsman은 다트모스 대학 연설에서 “중국에는 미국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more English speakers in China than United States)(Gregg, 2011)”고 말하면서 중국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세계 최대의 영어 사용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영어의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가질 국제적 위상을 학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영어의 실용성(practicality)과 유연성(Flexibility)과 수용력(acceptability)이다. 영어가 21세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영국의 해외주재 문화원인 British Council이 전세계 영어교육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21 세기에 영어에 대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처럼 영어는 실제로 21세기에 미디어, 통신, 학문 분야의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거의 전 분야에서 90 퍼센트 이상이 영어라는 언어를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의사서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래 세계의 언어는 언어 사용자의 수에 따라 재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결국 세계어는 현재 세계의 언어, 문명, 종교, 문화의 흐름 및 분화로 볼 때 영어와 중국어, 혹은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로 수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의 언어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중국어로 수렴되기 보다는 영어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일정 기간 동안 영어, 중국어와 아랍어가 세계 언어의 3 대 축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최소한 22세기까지는 영어의 우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 사용되는 영어의 현황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영어

의 몇 가지 변화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영어의 수용적 능력이다. 영어는 용광로와 같은 언어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언어든 영어화 하는데 익숙하다. 이는 영어가 더 오래 세계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영어학자인 Algeo(2010)는 "현대 영어 어휘의 세계주의(the cosmopolitanism of the present English vocabulary)"(p. 267)라고 한다.

다음으로 영어의 국제화와 표준화이다. 영어학자 David Crystal (1995, 2003, p. 185)이 말하는 WSSE (World Standard of Spoken English)나 전 IBM 부사장인 Jean-Paul Nerriere가 개발한 세계인 모두가 단 1500 단어만으로도 쉽게 의사서통을 할 수 있는 차세대 표준영어인 Globish (Globish, the dialect of the 3rd Millennium)가 주는 의미도 간단히 볼 변화가 아니다. Zamenhof(1887)가 만든 Esperanto와 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의 실패에 비하면 이런 쉽게 표준화될 수 있는 영어는 세계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최근 의사소통을 위한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과 구별가능성(intelligibility)에 초점(Munro & Derwing , 1995)을 둔 최근 부각되고 있는 World Engishes (Jenkins, 2003; Kachru, 2006)의 경향과 함께 영어가 미래에도 세계어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어가 아무리 세계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지구상에 여전히 다른 수많은 언어의 사용자가 있으므로 영어의 미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의 사용과 함께 교육자로서 주목해야 할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영어의 세계화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global이나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그러나 최근 이 단어는 세계화 (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를 합친 신조어인 지역별 세계화 (glocalization)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세계화라는 거시적인 추세에는 따라가지만 문화적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하자는 말이다. 이것은 우리 교육에도, 특히 언어 외국어 교육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우리 민족은 현재 고증이 되고 있는 요하 문명의 한웅과 단군시대부터 몇

천 년의 역사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 사대하던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와 근세 미국 문화의 그늘로 인해 미래의 창조적 역량과 동력이 되는 우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많이 상실했다. 이는 특히, 단군시대에 만들어진(정연종, 1996) 우리말인 한글과 우리 문명의 산물인 한자에 대한 언어적 전통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져 왔다.

전 세계의 문화권이 영어의 식민주의적 팽창에 대한 경계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데 애쓰고 있다. 심지어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 언어와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결부시켜 지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토착어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예: Ghandhi, 1958; Ngũgĩ de Thiong'o1986).

5.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방향

그러면 이런 최소한 200년 이상 지속될 영어를 중심으로 언어/외국어 어떻게 언어/외국어 영재 교육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방향성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용(content)이다. (Snow & Brinton, 1997) 이는 지식과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요소이다. 특히 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의 경우는 이미 모국어로 일정수준 이상의 언어나 지식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영재들을 교육하는 제 2언어 교육이므로 이 교육 내용이라는 면에 특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교육은 필연적으로 영어+ 한국어 혹은 영어+ 한국어+ 한문(혹은 중국어)이라는 이중언어 혹은 삼중언어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 방법으로는 기존의 PBL(Paper-based)에서 탈피한 새로운 PBL(예: Neville, 2009; Markham, 2011)인 과업 중심(Project-based), 문제 중심(problem-bsed), 과정 중심(Process-based)이라는 기존의 교육 방식에다 언어교육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위하여 언어교육의 특성인 산출 중심(Production-based) 영재교육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Kumaravadivelu가 제안한 Postmethod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영재라는 특수한 대상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존 method의 paradigm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재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시대의 영재들에게 적합한 Kumaravadivelu(2001)의 Posdtmethod pedagogy를 이야기 해보자. Kumaravadivelu는 기존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구시대적 교수법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Paolo Frreire의 비판적 교육(critical pedagogy)을 바탕으로 특수성의 교육(pedagogy of paerticularity), 실용성의 교육(pedagogy of practicality), 가능성의 교육(pedagogy of possibility)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Kumaravadivelu(1994, 2001)는 기존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구시대적 교수법을 반복해서 재탕하는 대신 구시대적 교수법의 틀의 반복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교수법을 Paolo Frreire의 비판적 교육(critical pedagogy)을 바탕으로 특수성의 교육(pedagogy of paerticularity), 실용성의 교육(pedagogy of practicality), 가능성의 교육(pedagogy of possibility)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2001, pp. 538-544). 특수성의 교육(pedagogy of particularity)이란 간단히 표현하면 맥락(context)과 상황(situation)에 맞는 교육이다. 즉, 한국이라는 EFL 상황, 혹은 영재라는 특수한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다. Kumaravadivelu(2001, p. 538)에 따르면, 이 특수성의 교육의 핵심은 Elliot(1993)의 “상황의 이해라는 해석학적 관점(the hermeneutic perspective of situational understanding)”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한국의 외국어교육, 특별히 언어/외국어 영재교육은 이미 한국어로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을 가진 영재들을 교육시키는 상항이므로 현재 대부분의 영어영재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처럼 지나치게 언어/외국어, 특히 영어교육에만 치우쳐서 영재교육이라는 요소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영재교육과 언어교육과 외국어교육, 특별히 영어교육 두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긴밀하게 협력하여 영어 영재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는 또한 실용성의 교육(pedagogy of practicality)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는 현재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분야 둘 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큰 현재 한국의 영어교육과 영재교육, 특히 영어 영재교육 상황에서는 이론과 실제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정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는 가능성의 교육(a pedagogy of possibility)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관성과 자기정체성(subjectivity and self-identity), 사회적 평등과 기존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영재교육, 특히 외국어 영재교육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의 교육 상항에서는 매우 미약한 부분이므로 언어 외국어 영재교육, 특히 영어영재 교육에서는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의 당위성에 대해 논하면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는 수학이나, 과학, 예술 영재처럼 하나의 독립된 영역의 영재성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개념설정을 시도하면서 설명하려고 했다. 결론적으로 언어/외국어(영어) 영재성은 아동이 또래에 비해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언어관련 과제집착력을 보이며, 조기에 언어/외국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각 영역에서 혹은 분석이나 표현, 창작 등이 면에서 또래에 비해 탁월한 발달이나 두드러진 능력을 보이는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외국어 영재성에 대한 처음시도이니 만큼 명확한 단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 가설에 가까운 개념설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지만, 적어도 언어/외국어(영어) 영재가 존재하다는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향후 적어도 몇 세기 동안은 영어라는 외국어가 국제어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어 영재를 영어 영재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언어영재, 외국어영재, 나아가 영어영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용어 문제에 대한 제약을 가지지 않고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ABSTRACT]

Conception of English Giftedness and appropriateness of its programs

Park, Jin-Kyu

Since 1990s, Korea has witnessed a lot of changes in English Education with rather unreasonably excessive English boom, but recently after 2000, the boom has got a new face called English Gifted Education. However, this new drive has shown a lot of problems. First and foremost, it has no theoretical foundation, not to speak of specific teaching method for those gifted students in the English Gifted Programs. with these current problems, this paper tries to build a foundation for those English Gifted Education. The first work in this paper is to conceptualize the concept of Foreign language giftedness or 'English Giftedness based on the existing frameworks. The work of conceptualizing English giftedness will be from Sternberg's (1993) concept of giftedness, Gardner(1983)'s linguistic intelligence, Bailey's (1986) verbal talent. Also, Lee's (1988) definition of giftedness for identification process will be used for the conception of English giftedness. After these conceptualizing process, the writer tries to provide a tentative concep of English giftedness.

Key Words: Gifted education, English Education, conception, English gifted program

참고문헌

김영명.「영어열풍의 집단광기」, 「교육비평』, 9, 2002, 56-64면
김명숙,「초등영어 영재교육 실태」.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31(1), PPA015, 179-200면
박강희, 「발표 교육 실헌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국제언어문학』, 26집, 2012, 187-201면
박진규, 『외국어(영어)영재 교육의 쟁점」. 『영어영문학연구』, 34(3), 2008, 223-246면
박진규, 『영어영재지도법』. 기쁘다문화사, 2016
서정기, 새시대를 위한 맹자. 한국학술정보, 2013.
송인섭· 이신동· 이경화· 최병연· 박숙희, 영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학문사, 2001
이가원, 신역 맹자. 서울: 홍신문화사, 1989
이신동 김동일, 박숙희.영재 판별방법과 과제, 영재와 영재교육 1(1), 2002, 59-79면
전영주, 박광철, 강혜영, 초·중등 영어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영어영재교육에 대한 인식, Secondary English Education 6(1), 2013, 3-22면
정연종, 한글은 단군이 만들었다. 서울:죠이정 인터내셔날, 1996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1992, p. 757.
Algeo, J. The origind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6th ed.). Wardworth, Cengage Learning.
Bailey, J., M. (1996). Literacy Development in Verbally Talented Children. In In J. VanTassel-Baska, D. T. Johnson, & L. N. Boyce (Eds.), Developing verbal talent: Ideas and strategies for teacher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pp. 174-188). Allyn & Bacon: Needham Heights, MA.
Carroll, John B. and Stanley Sapon.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 Manual 2002 Edition. Bethesda, MD: Second Language Testing, Inc., 2002.
Elliott, J. (1993). Reconstructing teacher education: Teacher development. London: FalmerPress
Feldhusen, J. F., & Hoover, S. M.(1986). A conception of giftedness: Intelligence, self-concept and motivation. Roeper Review, 8(3), 140-143.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70.
Gagne, F. (2005). From gifts to Talent: The DMGT as a Developmental Model.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53-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dner, H.(1983). 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 New York: Basic Books.

Gregg, J. (August 19th, 2011). China is or soon will be "the largest English-speaking nation" in the world. Tampa Bay Times. Retrieved November 21, 2014 from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statements/2011/aug/19/jon-huntsman/jon-huntsman-says-more-english-speakers-china-unit/

Grigorenko, E. L.; Sternberg, R. J.; Ehrman, M. E. (2000). "A Theory-Based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Ability: The Canal-F Theory and Test".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4 (3), 390

Jenkins, Jennifer. (2003). World Englishe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achru, Y. (2006). World Englishes in Asian Contexts. (Larry E. Smith Ed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Krashen, S. D. (2003). Dealing with English fever. Paper presented at the Twel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glish Teaching (pp. 100-108). English Teachers' Association/ROC, Taipei. Taipei: Crane Publishing Company.

Kumaravadivelu, B. (2001), Toward a Postmethod Pedagog. TESOL Quarterly, 4, pp. 537-560.

Kumaravadivelu, B. (1994). The postmethod condition: (E)merging strategies forsecond/foreig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28, 27--48.

Markham, T. (2011). Project Based Learning. Teacher Librarian, 39(2), 38-42.

Munro, Murray J.; Derwing, Tracey M. Foreign Accent, Comprehensibility, and Intelligibility in the Speech of econd Language Learners.

Neville, Alan J. (2009). "Problem-Based Learning and Medical Education Forty Years on". Medical Principles and Practice 18 (1): 1-9.

Park, J. (2009).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its history and symptoms . English Today, 25(1), 50-57.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imsleur, Paul, Daniel J. Reed and Charles W. Stansfield. Pimsleur Language Aptitude Battery: Manual, 2004 Edition. Bethesda, MD: Second Language Testing, Inc. 2004.

Renzulli, J. S. (1986). The three-ring conception of giftedness: A developmental model for creative productivity.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pp. 53-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mm, J. J. (2012). “Language intelligence: Lessons on persuasion from Jesus, Shakespeare, Lincoln, and Lady Gaga.”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Seth, M. J. 2002. Education fever: Society, politics, and the pursuit of schooling in South Kore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Sin-Ming Shaw, Time Magazine, Monday, May 31, retrieved 2014, November 06 from http://content.time.com/time/world/article/0,8599,2054213,00.html.

Spearman, C.E. (1904). "'General intelligence', Objectively Determined And Measured".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5, 201-293면

Sternberg(1993). A pentagonal implicit theory of giftedness. In F. D. Horowitz & R . Friedman(Eds.), Developmental approaches to identifying exceptional abilities. Proceedings of the 1992 Esther Katz Rosen Symposium.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gũgĩ de Thiong'o, J. (1986). Writing Against Neocolonialism.Vita Books: Wembley

Wilson, E., O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Zamenhof, L. L.(1887), Dr. Esperanto's International Language: Introduction & Complete Grammar.

이 논문은 2016년 11월 6일 접수되어 12월 6일까지 심사받아 12월 19일 게재 확정됨.